

##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의미의 본질

임지룡  
(경북대학교)

### <Abstract>

**Lim Ji-ryong.** 2006. **The Nature of Meaning from the Cognitive Linguistic Viewpoint.** *Korean Semantics*, 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nature of meaning from the cognitive linguistic viewpoi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gnitive linguistics contrasts with the formal linguistic approach in that: i) it refuses the autonomy hypothesis; ii) it explores the cognitive commitment co-existing between the human language ability and other mental abilities and the generalization commitment co-existing among all aspects of language; iii) it denies the rational approach, but emphasizes the embodied cognition thesis that meaning operations originate from bodily experiences. Second, the central fields of cognitive linguistic study are cognitive semantics and cognitive grammar. Cognitive semantics approaches meaning on the basis of cognition. Its basic assumption regarding the nature of meaning is that conceptual structures are embodied, representations are encyclopedic, organization is conceptual, and the conceptualization process is interpretative. Cognitive grammar contains two main theses: i) a symbolic thesis which concentrates on the exploration of structure and organization of language; and ii) a usage-based thesis according to which linguistic knowledge is formed by abstracting symbolic units from examples of usage. Third, as to the nature of meaning, cognitive linguistics refutes the checklist theory and truth condition theory of autonomy linguistics or objective linguistics, in favor of the prototype theory and construal theory. The prototype theory assumes that the meaning of a word is not defined by the checklist (the set of necessary and sufficient features), but cognized by the prototype of its category members, and the judgment of a category is decided through contrasting with its prototype. The construal theory

assumes that meaning is not a 'referent' or 'truth condition', but is the construal of the speaker regarding the conceptual contents evoked by an expression. In this case, the construal indicates the choice of the speaker in capturing and expressing a scene. To sum up, cognitive linguistics attempts to explain the correlation between language and thinking through focusing on bodily experiences. It may be safely said that cognitive linguistics adopts the encyclopedic model of meaning, and so is more human-centered, flexible, and explanatory than other theories concerning the nature of meaning.

핵심어: 의미의 본질(nature of meaning), 인지언어학(Cognitive Linguistics), 인지미론(Cognitive Semantics), 인지문법론(Cognitive Grammar), 자율성 가설(autonymy hypothesis), 인지적 언명(cognitive commitment), 일반화 언명(generalisation commitment), 신체화(embodiment), 체험주의(experientialism), 개념화(conceptualization), 상징적 정립(symbolic thesis), 용법 토대적 정립(usage-based thesis), 점검표 이론(checklist theory), 원형 이론(prototype theory), 해석(construal)

## 1. 들머리

의미란 무엇인가? 이 물음은 의미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명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Ullmann(1966: 17)에서는 의미의 정의는 모든 의미연구에서 가장 중심된 과제라고 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의미의 정의를 포함하여 그 본질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현대 언어학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지속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의미의 정의는 어느 면에서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이러한 혼란은 의미관의 차이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첫째, 의미의 본질에 대한 접근이 여러 학문 분야에서 시도되었기 때문이다. 의미의 정의는 철학에서부터 출발하였는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철학의 일환으로 언어를 다룸으로써 이에 따른 의미의 정의도 철학에 기반을 두었으며, 이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의미를 규정하는

것은 언어학의 고유한 관심사였는데, 구조언어학, 생성언어학, 그리고 인지언어학에서 뚜렷이 구별되는 의미의 정의가 시도되었다. 한편, 의미의 정의는 심리학의 주요 관심사가 되기도 했는데, 행동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였으며 인지심리학은 심리학과 언어학 접경에서 의미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다. 이 밖에 의미는 문화인류학의 지속적인 관심사이기도 했다. 둘째, 의미의 본질에 대한 접근 범위가 서로 다르게 시도되었기 때문이다. 곧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의미의 문제를 언어와 세계의 상관성 속에서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전통은 형식의미론에서 계승되었다. 현대 언어학의 경우, 구조언어학에서는 의미의 문제를 언어 자체에 국한시키고 언어 표현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의미를 추출하였으며, 변형생성언어학은 의미의 문제를 정신과 관련시키려 하였지만 역시 언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한편, 인지언어학에서는 의미를 언어와 그 사용자인 인간의 외부 대상세계에 대한 인식의 산물로 봄으로써 언어, 인간, 문화의 상관성 속에서 의미의 본질을 해명하려 하고 있다. 셋째, 의미에 대한 접근 층위가 서로 다르게 시도되었기 때문이다. 의미와 관련된 언어 단위는 어휘 층위, 문장 층위, 발화 층위로 대별된다. 그 중 지시설, 개념설, 의미관계설, 점검표설, 원형설 등은 어휘 층위, 곧 단어를 중심으로 한 것이며, 선택제약설, 진리조건설은 문장을 중심으로 한 것이며, 자극-반응설, 용법설, 해석설은 발화 층위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의미의 정의를 포함하여 그 본질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2천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학문 분야, 범위, 층위를 달리하여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의미의 본질에 대한 여러 관점은 혼란스럽다기보다,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의미 세계의 신비를 벗기려는 값진 노력으로서 그 하나하나가 소중하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현대 언어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인지언어학을 중심으로 의미의 본질을 기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인지언어학의 성격과 그 하위 분야인 인지의미론 및 인지문법론에서 지향하는 의미의 본질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의미의 본질에 대한 점검표 이론과 원형 이론, 그리고 진리조건설과 해석설을 대비하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인지언어학적 의미관의 특색이 뚜렷이 드러날 것이며, 이를 통해 의미의 본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다.

## 2. 인지언어학의 성격

인지언어학은 언어 연구에서 생성문법이나 형식의미론으로 대표되는 형식적 접근법의 지나친 추상화 및 일상적 경험과 동떨어진 데 대한 불만과 대안으로서 1980년대 후반에 성립되었다. 아래에서는 인지언어학의 정의, 인지언어학의 언명, 신체화된 마음을 중심으로 인지언어학의 성격을 기술하기로 한다.

### 2.1. 인지언어학의 정의

‘인지언어학(Cognitive Linguistics)’은 인간 마음의 본질, 더 나아가서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학제적 연구의 일환으로서 ‘언어, 몸과 마음, 문화’의 상관성을 밝히려는 언어 이론이다.<sup>1)</sup> 이것은 곧 ‘인지언어학’이 언어를 보다 더 일반적인 인지능력 내에 위치시키는 언어 연구의 접근법임을 뜻한다 (Taylor 2002: 589 참조).

이 관점은 구조언어학과 변형생성언어학에서 언어능력을 인지능력과는 무관한 자율적 체계로 파악한 것과 달리, 언어의 이해와 사용은 지각, 개념 체계, 신체화된 경험, 세상사의 경험, 지식, 문화적 배경 등의 일반적 인지능력 과 깊은 상관성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언어에 대한 종래의 폐쇄적이고 자율적인 구조관에서 개방적이고 사고 의존적인 시각으로 언어의 구조와 의미의 문제를 밝히려는 새로운 경향을 ‘인지언어학’이라고 부른다(임지룡 1997a: 21 참조).

인지언어학은 다양한 접근법, 방법론, 강조점을 포함하지만, 그런 것들은 많은 공통된 가정에 의해 통합된다. 이러한 가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언어가 인간 인지의 본질적인 부분을 형성한다는 것이며, 언어 현상의 통찰력 있는 분석은 인간의 인지능력에 대해 알려진 바의 중요한 부분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인지언어학의 목적은 언어를 아는 것이 무엇을 뜻하며, 언어가 어떻게 습득되며,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인지적으로

1) 이와 관련하여 Gibbs(1996: 50)에서는 “인지언어학은 마음, 몸, 그리고 언어의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이해의 방법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였다.

타당성 있게 설명하는 데에 있다(Taylor 2002: 3-4 참조).

## 2.2. 자율성 가설과 인지언어학적 언명

인지언어학의 개척자 중 한 사람인 Lakoff(1990: 39-47)는 인지언어학을 ‘인지적 언명’과 ‘일반화 언명’에 의해서 특징지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Chomsky의 ‘자율성 가설’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라 할 수 있다.

### 2.2.1. 자율성 가설

생성문법으로 대표되는 형식주의에서는 ‘언어능력’과 언어학의 하위 분야인 ‘통사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자율성을 주장하였다.

첫째, ‘언어능력의 자율성(autonomy of linguistic competence)’이다. 이것은 언어능력이 인간에게 유전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종 고유의 생득적 능력이며, 다른 인지능력과 무관한 독자적인 구성 원리의 인지체계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언어의 구조와 규칙에 대한 지식을 주의력, 기억력, 추론 등 일반 인지 작용과 별개의 자율적인 ‘모듈(module)’ 또는 ‘능력(faculty)’으로 간주하고 그 차이를 정도의 문제라기보다 본질상의 차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다른 인지능력의 언급 없이 언어 고유의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였다.

둘째, ‘통사론의 자율성(autonomy of syntax)’이다. 이것은 음운론, 의미론, 통사론과 같은 언어학의 하위 분야들 간에 각각 상당히 다른 종류의 구조화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통사론의 연구는 의미 현상의 언급 없이 통사 현상의 독자적인 기제<sup>2)</sup>에 의해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였다.

2) 이러한 기제로는 ‘구 구조규칙, 기저구조, 이동, 공범주, c-통제’ 등이 제시될 바 있다.

## 2.2.2. 인지언어학적 언명

인지언어학에서는 언어능력과 통사론의 자율성 가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언명을 표방하였다.

첫째, ‘인지적 언명(cognitive commitment)’이다. 이것은 여러 학문 분야로부터 밝혀진 마음과 뇌의 지식과 일치하는 언어의 일반 원리를 밝혀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가리킨다. 곧 언어 구조의 원리를 밝히는 데 철학, 심리학, 인공지능, 신경과학 등 다른 인지과학 분야에서 밝혀진 인간 인지에 대한 지식을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인지언어학에서는 언어의 구조와 조직이 인지의 다른 양상들과 구별되는 개별적 언어 모듈의 존재를 부인하며, 언어와 다른 정신적 처리과정 간의 차이는 본질상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Evans & Green(2006: 27-43)에서는 ‘주의(attention), 범주화, 은유’를 통해 언어의 조직이 일반적인 인지 기능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둘째, ‘일반화 언명(generalisation commitment)’이다. 이것은 인간 언어의 모든 양상을 통제하는 일반 원리를 특징짓고자 하는 언명으로서, 음운론·의미론·화용론·형태론·통사론 등 언어 연구의 다양한 분야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공통적 구조화 원리가 있으며, 언어학은 이러한 공통된 원리를 밝혀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인지언어학에서는 언어학의 개별적인 모듈이나 하위체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통사론이나 음운론에서만 요구되는 이론적 기제를 부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Evans & Green(2006: 27-43)에서는 ‘범주화, 다의성, 은유’를 통해 일반화 언명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인지언어학에서는 언어 사용의 원리는 일반적 인지 원리를 구체화 하며, 언어적 설명에서 분석 층위 간의 경계를 넘어서 공유하는 원리를 탐구하고자 한다.

## 2.3. 신체화된 마음

인지언어학의 핵심적인 가정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신체화’에 대한 관심

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체화에 대한 대립적 관점과 인지언어학의 신체적 정립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 2.3.1. 합리주의와 체험주의

17세기의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마음’과 ‘몸’이 구별되는 실체라는 ‘심신 이원론’을 주창하였는데, 이와 맥락을 같이 한 서양 철학과 초기 인지과학에서는 마음을 몸, 즉 ‘신체화(embodiment)’에 대한 의존 없이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현대 언어학에서 이러한 ‘합리주의 접근법(rational approach)’은 촛스키의 생성문법 및 몬테규의 형식의미론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인간의 몸이나 경험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고서도 언어를 형식적 및 전산 체계로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곧 형식의미론에서는 언어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를 단순히 반영하는 것이므로, 언어 연구에서 신체화를 배제한 채 언어의 역할을 세계의 사태 기술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인지언어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이나 마음과 연관된 언어는 인간의 신체적 경험과 분리하여 연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sup>3)</sup> 이를 ‘경험주의 접근법(empiricist approach)’ 또는 ‘체험주의(experientialism)’라고 한다. 이 경우 체험주의란 우리의 사고가 본질적으로 신체화된 경험에서 유래한다는 관점이다. 체험주의에 따르면 언어는 세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용한 ‘생태적 지위’와 ‘신체화의 본질’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고 본다. 따라서 언어는 ‘신체화’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계에 대한 우리의 고

3) 인지언어학에서 ‘신체화’의 의미를 부각한 주요 논의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인지언어학의 탐구 가운데 중심적인 것은 언어의 사용이 우리의 일상적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는 생각이며, 이 경험은 일차적으로 신체적 경험을 뜻한다(Casad 1996: 1).
- ② 인지언어학의 접근방식에서는 언어의 구조가 인간의 개념지식, 신체적 경험, 그리고 담화의 의사소통적 기능과 관련되어 있고 그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동기화되어 있다고 본다(Gibbs 1996: 27).
- ③ 인지언어학은 정신과 신체, 그리고 언어의 상호작용 방식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이해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Gibbs 1996: 50).
- ④ 은유적 의미의 많은 부분은 우리 자신의 신체적 경험에서 비롯된다. 의미의 ‘신체화’는 은유에 관한 인지언어학의 중심적 개념이며, 실제로 의미에 관한 인지언어학의 중심적 개념이기도 하다(Kövecses 2002: 16).

유한 인지적 해석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2.3.2. 신체화된 인지 정립

‘신체화된 인지 정립(embodied cognition thesis)’은 의미 작용, 곧 추상적인 사고 과정은 우리 몸의 신체적 경험에서 출발된다는 인식의 전환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마음과 개념적 조직은 종 특유의 신체를 가진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 하는 방식에 의존한다는 것이다(Evans & Green 2006: 27 참조). 이에 따라 인지언어학에서는 신체화된 경험과 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추구하고 있다.

첫째, 인지언어학에서는 신체화된 경험을 중시한다. 경험이 신체화된다는 것은 우리 신체의 고유한 성질 때문에 인간은 종 특유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실재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신체의 본질에 의해 중재되며 제약을 받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색채, 소리, 냄새, 맛’의 지각이나,<sup>4)</sup> ‘중력’의 경험 양상을 볼 때 생물체마다 신체화의 본질에 의해 다른 종류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Pöppel(1994)에서는 ‘가변적 신체화(variable embodiment)’라고 하였다.

둘째, 인지언어학에서는 신체화된 인지를 중시한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개념’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실재’의 본질은 우리의 신체화에 의존한다. 이와 관련하여 Johnson(1987)에서는 신체적 경험이 인지적 층위에서 표명되는 한 가지 원리인 ‘영상도식(image schemas)’의 존재를 제안한 바 있다. 예를 들어, ‘균형’의 개념은 우리 몸의 근육운동 경험에서 ‘원형(prototype)’을 형성하며, 원형을 비롯하여 반복되는 경험들 간의 유사성에 의해 추상적 개념인 도식적 표상, 즉 ‘영상도식’을 형성하며, 영상도식은 개념적 투사에 의해 ‘{사회 발전, 수요공급, 정당 간 힘, 마음}의 균형’에서처럼 추상적인 영역으로

4) 예를 들어, ‘빛’과 ‘색’의 경우 적외선(赤外線)과 자외선(紫外線)은 인간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인간은 빨강과 보라 사이의 색을 지각할 수 있을 뿐이며, ‘소리’의 경우 인간은 주파수 20Hz~20,000Hz 내의 음을 지각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 12월 26일 쓰나미(津波)가 푸켓 해변을 급습했을 때 인간만이 유독 그 징후를 지각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확장(extension)’ 된다.

요컨대, 언어는 단순히 형식과 의미의 대응관계에 의한 자율적인 기호 체계가 아니라, 신체와 정신을 가진 언어 사용주체가 환경 세계와 상호 작용하면서 신체적 경험을 기반으로 획득해온 전달 수단이므로, 언어에는 인간의 신체와 신체적 경험이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신체화는 인간 인식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의미 확장의 진원지이며, 신체적 경험은 원초적인 경험으로서 새롭고 추상적인 대상을 이해하는 준거가 된다.

### 3. 인지언어학의 두 가지 분야

인지언어학자들이 언어를 연구하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언어가 사고의 체계를 반영한다는 가정에서 유래하므로, 언어 연구는 개념화의 해명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언어는 인지적 기능의 창구로서, 사고와 개념의 본질, 구조, 조직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따라서 인지언어학은 언어가 어떻게 인간 마음의 근본적인 특성과 구성 자질을 반영하는지를 탐구하는 새롭고 흥미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인지언어학’은 그 이론의 성립과 체계화 과정에서 의미와 문법이 중심적 연구 대상이 됨으로써 ‘인지의미론’과 ‘인지문법론’이 ‘인지언어학’의 다른 명칭으로 통용되어 왔다.<sup>5)</sup> 의미의 본질과 관련하여 ‘인지언어학’의 두 가지 주요 분야인 ‘인지의미론’과 ‘인지문법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5) ‘인지언어학’의 원리가 언어학의 여러 하위 분야에 걸쳐 적용되는 과정에서, 연구의 초점 분야에 따라 ‘인지의미론, 인지문법론, 인지화용론, 인지음운론’, 그리고 ‘인지유형론’ 등으로 그 지평이 세분화될 뿐 아니라 정밀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Taylor(2002)의 *Cognitive Grammar*는 의미론, 통사론, 형태론, 음운론 등 ‘인지언어학’의 연구 분야를 망라한 저술이며, Evans & Green(2006)의 *Cognitive Linguistics*는 인지언어학의 개관, 인지의미론, 인지문법론을 다룬 가장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저술이다. 이 밖에도 Werth(1999)의 *Text Worlds: Representing Conceptual Space in Discourse*는 인지언어학의 원리를 담화 중심의 ‘텍스트’에, Stockwell(2002)의 *Cognitive Poetic: An Introduction*은 인지언어학의 원리를 ‘시학’에 적용한 것이다.

### 3.1. 인지의미론

인지언어학은 의미의 문제를 언어 연구의 중심에 두고 있다. 그 중 ‘인지의미론(Cognitive Semantics)’은 의미의 문제를 인지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하는 의미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의미를 단어와 세계 간의 관계로 간주하고 언어 체계에서 인지적 조직을 배제한 ‘진리조건적 의미론(Truth-Conditional Semantics)<sup>6)</sup>’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인지의미론의 개척자 중 한 명인 Talmy(2000: 4)에서는 인지의미론을 언어의 개념적 내용과 개념적 구조에 관한 연구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인지의미론의 네 가지 중심적 가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Evans & Green 2006: 157-163 참조).

첫째, 개념적 구조는 신체화되어 있다. 이것은 개념적 구조의 본질이 신체화된 경험으로부터 발생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위-아래’에 대한 (1)의 표현을 보기로 한다.

- (1) a. 사기가 {올랐다/ 떨어졌다}.  
b. 분위기가 {들뜨다/ 무겁다}.

(1)의 ‘사기, 분위기’ 등에서 ‘위’는 긍정적, ‘아래’는 부정적 평가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대조적인 평가는 우리의 신체적 경험과 동기화되어 있다. 실제로 우리는 건강하고 기분이 좋을 때 몸이 가뿐하고 치솟는 반면, 병들고 마음이 우울할 때 몸이 무겁거나 자리에 눕게 된다. 이러한 신체적 경험이 ‘위-아래’의 가치 평가에 기초를 이루고 있다.

둘째, 의미 표상은 백과사전적이다.<sup>7)</sup> 이것은 단어를 포함한 언어 단위가

6) 의미의 ‘사전적 모형’을 채택하는 ‘진리조건적 의미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의 의미는 ‘세계 지식’과 분리되어 있다. 둘째, 의미론(사용 문맥과 상관없이 의미 분해될 수 있는 단어의 의미와 관련 있음)과 화용론(화자가 추리를 구성하기 위해 문맥적 정보를 사용함)을 구분한다. 셋째, ‘의미 분해’를 통해 단어 의미의 엄격한 정의를 추구한다. 넷째, 단어 및 문장 의미에서 합성성의 원리를 채택한다. 다섯째, 객관주의 관점을 채택하여, 객관적인 실재를 가정하고 언어로 이루어진 기술을 참이나 거짓으로 판단하며 그 결과 논리적 상위언어에 의해 명시적인 의미 모형을 설정한다.

7) 의미의 ‘백과사전적 모형’을 채택하는 ‘인지의미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의

특정한 개념과 관련 있는, 광범위한 지식 창고의 ‘접근 지점’ 또는 ‘촉진제’로 다루어지며, 의미 구성은 발화 문맥을 배경으로 적절한 ‘해석’을 선택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가 해변에서 놀고 있는 문맥’을 배경으로 한 (2)를 보기로 한다.

- (2) a. 어린이는 안전하다  
 b. 해변은 안전하다.  
 c. 삼은 안전하다.

‘안전하다’에 관한 의미는 (2a)의 경우 어린이가 다치지 않는다는 것이며, (2b)의 경우 해변은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최소화된 환경이라는 것이며, (2c)의 경우 삼이 어린이를 다치게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해석은 ‘어린이, 해변, 삼’, 그리고 ‘안전하다’와 관련된 화자의 백과사전적 지식에 의존한다.

셋째, 의미 구성은 개념화이다. 이것은 언어 자체가 의미를 부호화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포함한 언어 단위가 의미 구성의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의미 구성은 개념화와 동일시되는데, ‘개념화(conceptualization)’는 언어 단위가 일련의 개념적 작용과 배경 지식의 선택을 위한 촉진제 역할로서의 동적 과정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3)과 같은 속담 표현을 보기로 한다.

- (3) 잉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뛰다.

(3)의 속담은 ‘잉어’를 따라 뛰는 ‘망둥이’를 통하여 망둥이의 행위에 유추되는 인간 행위, 즉 ‘선거, 미녀선발대회, 주식투자’ 등을 풍자한 것이다. 이 속담의 풍자성을 이해하는 과정에는 세 가지 정신 공간이 필요하다(임지룡 2000: 52-53 참조). 곧 우리 머릿속에는 ‘물고기’의 집합에 관한 ‘속담 공간’이

---

의미는 ‘세계 지식’과 얽혀 있다. 둘째, 의미론과 화용론의 명확한 구분을 부인한다. 셋째, 단어 의미에 대해 ‘의미 분해’에 기초한 엄격한 정의를 부인하고 의미의 ‘원형 모형’을 채택한다. 넷째, 관용어 및 비유 언어의 의미에서 구성성의 원리를 채택한다. 다섯째, 의미는 실제에 대한 인간의 경험적 해석이라는 체험주의를 채택한다.

축매가 되어 유자격자와 무자격자의 집합인 ‘현실 공간’이 활성화되는데, 이 두 가지 공간은 ‘품질의 높낮이’ 집합이라는 추상화된 ‘총칭 공간’과 상관성을 맺고 있다.

넷째, 개념화 과정은 해석이다. 이것은 의미를 구성하는 개념화 과정이 장면이나 상황에 대한 개념화자의 선택이라는 것을 뜻한다. 곧 해석은 동일한 장면이나 상황에 대해 개념화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로서, 선택의 결과인 해석이 다르면 의미도 다르게 된다. 예를 들어, 노 아웃의 만루 상황인 야구경기에서 “위기다!”라고도 하고 “기회다!”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 장면의 개념화 과정에 개념화자의 해석이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한 증거이다.

### 3.2. 인지문법론

인지언어학의 일환으로서 인지의미론은 개념적 구조와 조직의 연구에 초점을 두는 데 비해, 인지문법론은 언어적 구조와 조직의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인지문법론의 두 가지 중심 원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Taylor 2002: 38-77, Evans & Green 2006: 476-480 참조).

첫째, ‘상징적 정립(symbolic thesis)’이다. 인지문법론에서는 언어가 본질적으로 상징적이라는 가설에 기초를 두며, 언어 표현은 개념화를 상징한다고 주장한다.<sup>8)</sup> 이것은 문법의 기본 단위가 형태-의미 쌍, 즉 음운극(음성)과 의미극(의미)을 가진 ‘상징적 단위’라고 본다. 곧 ‘상징적 정립’은 언어가 본질 상으로 음성과 의미를 연결하는 수단이라는 관점이다. 예를 들어, ‘나무’에 대한 시각적 영상인 ‘木’은 개념으로서 상징적 단위의 의미극이며, 그 음성 형

8) 언어가 본질적으로 상징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문법의 기본 단위가 상징적 단위라는 생각은 Saussure의 언어 이론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소쉬르에 따르면, 언어는 개념(시니피에)과 청각영상(시니피앙) 사이의 사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징적 체계라고 하였다. Saussure의 모형과 인지적 모형 간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인지적 모형은 소쉬르의 상징 개념을 채택하는데, 곧 인지적 모형에서 의미극은 ‘개념’에, 음운극은 ‘청각영상’과 대응된다.

9) ‘상징적 단위’를 Langacker의 인지문법 체제에서는 ‘상징적 조합(symbolic assembly)’이라고 부르고 구문문법 접근법에서는 ‘구문(construction)’이라고 부른다.

태인 [namu]는 개념에 대응하는 말소리의 연속체로서 상징적 단위의 음운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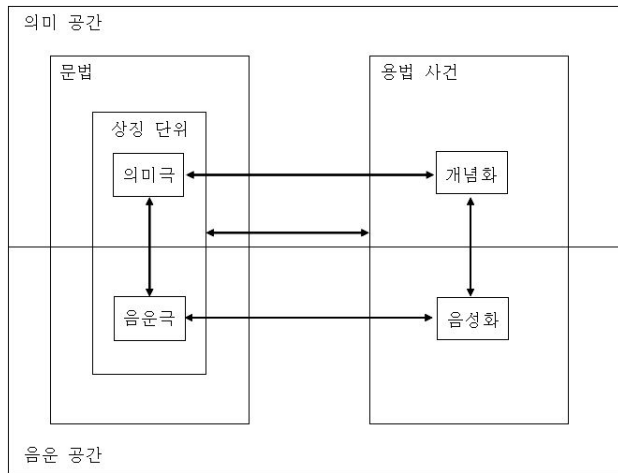
인지문법론에서는 기본적 문법 단위가 상징적 단위이므로, 의미는 인지적 모형에서 중심적이며, 형태는 의미와 분리해서 연구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곧 문법 연구가 어휘적 단위에서 문법적 단위에 이르기까지 언어를 구성하는 일련의 단위에 대한 연구라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피동문은 그 자체의 도식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4b)에서 의미의 초점은 행위자(‘사냥꾼’)보다 피동자(‘사슴’)에게 놓이게 된다.

- (4) a. 사냥꾼이 사슴을 쫓는다.  
b. 사슴이 사냥꾼에게 쫓긴다.

이처럼, 문법적 단위가 내재적으로 의미를 가진다는 생각은 문법에 대한 인지적 접근법의 중요한 주제이며 따라서 ‘어휘부-문법’ 연속체의 개념을 발생시킨다.

둘째, ‘용법 토대적 정립(usage-based thesis)’이다. 이것은 화자의 언어 지식이 언어 사용의 상황적 실례들로부터 상징적 단위를 추상화함으로써 형성된다는 주장이다.<sup>10)</sup> ‘용법 토대적 정립’에서는 언어 지식이 언어 사용으로부터 형성되므로, 언어 지식과 언어 사용 간에 본질적인 구분이 없다고 본다. 곧 언어 지식은 언어가 사용되는 방식에 대한 지식이다. 이에 따른 인지문법론 모형의 기본 구조를 보면 <그림 1>과 같다(Langacker 1987: 77, Evans & Green 2006: 479 참조).

10) Radden & Dirven(2006)에서는 “한 언어의 문법은 화자들이 삶에서 경험해온 것을 반영해 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주어진 장면에 대한 화자들의 관점을 나타내도록 구조적인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용법 토대적’이라고 하였다.



<그림 1> 인지문법론의 모형

<그림 1>에서 용법 사건에 대한 상징적 단위는 크게 ‘의미 공간(의미)’과 ‘음운 공간(형태)’으로 대별되며, ‘문법’ 상자는 화자의 마음속에 있는 관습적 언어 지식을 나타내고, ‘용법 사건’ 상자는 용법 사건이나 발화를 나타낸다. ‘용법 사건’은 말소리인 ‘음성화’와 그에 대응하는 해석인 ‘개념화’로 이루어진다. 수평 화살표에서 언어 표현의 ‘의미극’은 개념과 대응하고 ‘음운극’은 개념을 실현하는 소리 연속체와 대응한다. 수직 화살표는 ‘소리(의 지식)’와 ‘의미(의 지식)’의 상징적 연결을 나타낸다.

인지문법론은 위의 두 가지 정립을 공유하면서도 그 전개 과정이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Langacker(1987)의 ‘인지문법(Cognitive Grammar)’과 Goldberg(1995)의 ‘구문문법(Construction Grammar)’이 대표적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접근법에서 공통점은 문법 연구에 대한 목록 토대적 접근법, 즉 문법을 규칙이나 원리의 체계라기보다는 상징적 단위의 목록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한편, 이 두 가지 유형의 접근법에서 차이점을 보면 ‘인지문법’은 언어의 상징적 단위를 구조화하고 발생시키는 인지적 원리와 기제를 모형화하고자 하는 반면, ‘구문문법’은 언어의 구조화된 상징적 단위의 목록을 연구하는 데 있다.

요컨대, ‘인지언어학’은 인간 마음에 대해 알려진 바와 공존하는 방식으로 언어를 연구하며, 언어가 마음을 반영하고 마음의 작용방식을 밝혀 주는 창구로 간주한다. 그 중 ‘인지의미론’은 경험과 신체화된 인지, 언어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서 개념적 체계가 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언어에 의존하는 것이며, ‘인지문법론’은 언어를 구성하는 상징적 언어 단위(형태소, 단어, 구, 문장 및 구문)를 연구하는 것으로서 언어의 작용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개념적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경우 의미와 문법은 동전의 양면으로 간주되므로, 인지의미론과 인지문법론은 상보적이다.

#### 4. 의미의 본질에 대한 대립적 관점

의미 연구의 역사를 통해 그 본질을 파악해 온 많은 관점 중에서 ‘점검표 이론’과 ‘원형 이론’, 그리고 ‘진리조건설’과 ‘해석설’은 기존의 구조의미론 및 형식의미론과 인지언어학 간에 가장 뚜렷이 대립되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의미의 본질에 대한 이들 관점을 대비해 보기로 한다.

##### 4.1. 점검표 이론과 원형 이론

의미의 본질과 관련하여 단어의 의미가 고정되고 명확하다는 관점과 유동적이고 불명확하다는 관점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다. 그 중 전자의 관점은 의미의 점검표 이론으로, 후자의 관점은 원형 이론으로 전개되어 왔는데, 단어의 의미를 중심으로 두 관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4.1.1. 점검표 이론

‘점검표 이론(check-list theory)’은 단어의 의미를 필요충분 자질의 집합으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사각형’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단한 평면 도형, 네 변의 길이가 같음, 네 각의 크기가 같음’이라는 필수적인 속성의 목록을 점검하여 그 속성에 부합될 때 ‘정사각형’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다는 것이다.<sup>11)</sup> Fillmore(1975: 123)는 단어를 규정하는 속성의 목록, 즉 기준 속성의 점검표와 관련하여, 이를 ‘의미의 점검표 이론(checklist theory of meaning)’이라고 명명하였다.

점검표 이론은 구조의미론의 ‘성분분석(componential analysis)’ 이론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이것은 물질이 분자나 원자로 분해되듯이, 단어의 의미를 의미 성분의 결합체로 간주하고 의미 성분이라는 더 작은 단위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년’의 의미는 [+인간] [+남성] [-성숙]의 세 가지 의미 성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세 개의 성분은 ‘사람’의 의미장을 형성하는 ‘소년, 성인남자, 성인여자’에 대하여 공통된 성분과 시차적 성분을 통해 대립된다. 즉 ‘소년’은 ‘중’ 차원의 ‘인간’과 ‘비인간’, ‘성별’ 차원의 ‘남성’과 ‘여성’, ‘성숙’ 차원의 ‘성숙’과 ‘미성숙’이라는 여섯 개의 성분과 관련된다. 단어의 성분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성분을 [ ] 속에 넣고, ‘±’의 이분법적 기호를 사용하는데, 각 차원의 한 쪽은 다른 쪽과 상보적 관계에 있으므로 [+인간] [+남성] [-성숙]의 세 가지 성분으로 단순화시키면 ‘사람’의 의미장은 (5)와 같이 표시된다(임지룡 1992: 56-60 참조).

- (5) a. 소년: [+인간] [+남성] [-성숙]  
 b. 소녀: [+인간] [-남성] [-성숙]  
 c. 성인남자: [+인간] [+남성] [+성숙]  
 d. 성인여자: [+인간] [-남성] [+성숙]

(5)에서 [+인간]은 네 개 어휘의 공통적 성분이며, [+남성]과 [+성숙]은 변별적 성분, 즉 시차적 성분이다. 이처럼 구조의미론에서는 단어의 의미를 의미 성분, 즉 의미의 점검표 집합으로 정의한다. 이 경우 의미 성분은 언어 자체의 대립적 속성으로서 인간의 경험이나 인지의 측면과는 자율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점검표 이론, 즉 성분분석 이론의 이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꼽을 수

11) ‘점검표 이론’은 “범주는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필요충분 속성으로 이루어지며, 범주는 명확한 경계를 가지며, 범주의 구성원들은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는 ‘고전 범주화(classical categorization)’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있다. 첫째, 점검표 이론은 단어의 의미관계를 포착하는 데 효율적이다. 단어의 의미관계에는 동의관계, 대립관계, 상하관계 등이 있는데, 점검표 이론에서는 단어가 갖는 의미 특성으로부터 의미관계가 포착된다고 본다.<sup>12)</sup> 둘째, 점검표 이론은 문장의 의미관계를 포착하는 데 효율적이다. 문장의 의미관계에는 향진관계, 모순관계, 변칙관계 등이 있는데, 점검표 이론에서는 의미 성분의 시차적 특징을 통해 그 의미관계를 해명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점검표 이론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Aitchison 2003: 45-48 참조). 첫째, 어떤 속성이 점검표의 목록에 들어가는지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노총각’의 경우 그 핵심적 의미는 [+인간] [+남성] [+성숙] [-결혼]이 되며, 부가적으로는 ‘쌈씀이가 해품, 순수성이 약함, 자살 충동이 강함, 차를 빨리 뚫’ 등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필수적 성분과 부가적 성분 간의 경계를 나누기는 기준을 찾기 어렵다. 둘째, 사물에 해당하는 어떤 필수적 조건도 찾기 어려울 때 점검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호랑이’의 핵심적 의미를 ‘육식성, 네 다리, 줄무늬’ 등으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가 얼마든지 가능하며, 극단적으로 ‘채식성’이거나 ‘다리가 세 개’이거나 ‘줄무늬가 없는’ 문체의 동물에 대해 여전히 ‘호랑이’라고 부르게 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셋째, 단어의 의미가 고정되고 명확하여 그 의미를 구성하는 점검표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단지 몇몇 전문가들만이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이며, 전문가들마저도 의견이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12) 점검표 이론, 즉 성분분석 이론은 구조의미론에서 단어간의 ‘의미관계(sense relation)’를 기술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구조의미론은 Saussure의 “특정한 언어 요소의 의미는 구조 전체 속에 차지하는 위치에 의해서 정의된다.”고 하는 구조언어학에 뿌리를 둔 것으로서, 구조언어학의 결정체인 구조의미론에서는 단어의 의미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어와의 의미관계 속에서 구조적으로 그 지위를 갖는다고 보았다. 이것을 Taylor(2002: 190-192)에서는 의미의 ‘언어-내적 접근법(language-internal approach)’이라고 하였는데, 언어-내적 접근법에서는 ‘의미’를 한 언어 내의 표현들 사이의 관계인 ‘계열관계(동의관계, 대립관계, 상하관계)’와 ‘결합관계(연어관계)’에 의해서 포착하려고 하였다.

#### 4.1.2. 원형 이론

‘원형 이론(prototype theory)’은 점검표 이론의 대안으로 등장한 인지언어학의 핵심 이론 가운데 하나이다. 인지심리학자 Rosch와 그녀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된 ‘원형 이론’은 자연 범주가 원형적인 구성원을 중심으로 ‘방사상 범주’를 형성한다고 봄으로써 사물을 범주화할 때 ‘원형’을 인지 과정의 ‘참조점(reference point)’으로 삼는다는 관점이다.<sup>13)</sup> 자연 범주에 대한 원형 이론은 Lakoff(1987)에 의해 단어의 의미를 중심으로 언어적 범주에 적용됨으로써, 단어의 의미는 범주 원소의 원형을 통하여 인지되며 범주의 판정은 참조점인 원형과의 대조를 통하여 결정된다는 인식이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 원형 이론의 ‘원형’과 ‘방사상 범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원형(prototype)’이란 해당 범주를 대표할 만한 가장 ‘전형적, 적절한, 중심적, 이상적, 좋은’ 보기를 말한다. 이 용어는 Berlin & Kay(1969)의 색채 범주에서 가장 중심 부위의 ‘초점(focus)<sup>14)</sup>’을 Rosch(1975: 198)가 형태, 유기체, 사물, 언어 등에까지 포괄할 수 있는 ‘원형(prototype)’으로 대치한 것이다. 예를 들어, (6)에서 ‘새’라고 하면 ‘닭, 타조, 펭귄’ 등이 아니라, ‘참새, 비둘기, 까치’ 등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처럼 원형적 구성원은 중립적인 문맥에서 ‘기본치 추론(default reasoning)’이 가능하다.

(6) 정원에 새가 있다.

다음으로, ‘방사상 범주(radial category)’란 범주가 원형적 구성원과 다양한 주변적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7a)의 ‘어머니’는

13) ‘원형 이론’은 “범주는 원형을 중심으로 가족의 닭음처럼 연쇄적인 망을 이루며, 그 경계는 불분명하며, 범주의 구성원 간에는 원형에서부터 주변에 이르기까지 비대칭성을 이루고 있다.”는 ‘원형 범주화(prototype categorization)’를 성립시켰다.

14) Berlin & Kay(1969)는 색채 범주화 연구에서 하나의 색채 범주는 ‘초점 색채(focal colour)’를 중심으로 구조화되며, 초점 색채의 특징은 비초점 색채에 비해 지각적으로 현저하며, 단기 기억에서 더 정확하며 장기 기억에서 더 쉽게 보존되며, 색채 명명 작업에서 더 신속하게 산출되며, 언어습득의 초기 단계에 나타난다고 하였다(Ungerer & Schmid 1996: 9 참조).

아이를 낳았으며, 유전물질 중에서 반을 제공하였으며,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가정에 있으며, 아이의 아버지와 결혼했으며, 아이보다 한 세대 위의 법적 보호자인 ‘원형적 어머니’로서 ‘출산, 유전, 양육, 결혼, 계보, 주부’ 모형의 합성체이다. 이러한 원형적 모형은 ‘대리모, 양모, 수양모, 미혼모, 계모’ 등의 비원형적 ‘어머니’와 대조를 이루는데, 원형적 ‘어머니’와 비원형적 ‘어머니’가 함께 ‘어머니’의 방사상 범주를 구성한다. 또한 (7a)의 원형적 ‘어머니’는 (7b-c)의 ‘어머니’로 확장된다. 이러한 변이형의 확장은 일반적 규칙에 의해 예측될 수 없으므로 학습해야 하는데, 이 경우 원형은 변이형의 확장 가능성을 결정한다(Lakoff 1987: 91 참조)

- (7) a. 어머니께서는 가난한 남편에게 시집 와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  
 b. 고아들의 어머니  
 c. 필요한 발명의 어머니

실제로, 범주의 구성원들 사이에는 ‘원형 효과(prototype effect)’가 나타난다. 여기서 원형 효과란 범주 구성원들 사이의 비대칭성으로서, 원형적인 보기가 비원형적인 보기에 대하여 특권적, 우월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Rosch 1978: 38-39 참조). 첫째, 원형적인 보기는 비원형적인 보기에 비해 그 범주에 속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덜 걸린다. 둘째, 어떤 범주 명칭의 접화 효과는 그 하위 범주가 원형일 때 최대화된다. 셋째, 판단이나 추론의 기준이 되는 것은 원형적 보기이다. 넷째, 어린이들은 범주의 원형적인 보기를 먼저 습득한다. 다섯째, 언어 장애, 곧 실어증 환자는 범주의 원형적인 보기보다 주변적인 보기를 발화하는 데 더 많은 오류를 범한다.<sup>15)</sup>

15) 원형 이론의 발전 과정에서 범주 구조의 원형 효과는 ‘이상화된 인지모형(idealized cognitive models: ICMs)’의 산물임이 드러났다(Lakoff 1987: 68-76, Aitchison 2003: 69-74 참조). 이 경우 ICMs란 인지모형 자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bachelor’(독신남성)는 성분분석에 의하여 [UNMARRIED] [ADULT] [MALE]로 정의되지만, 일부일처제 결혼제도와 결혼적령기에 대한 ICMs를 전제로 한다. 곧 결혼이라는 문화적 제도에 의하여 동거상태의 미혼남자, 타잔, 신부(神父), 동성연애자, 세 명의 아내를 가진 회교도 등은

그러면 원형 이론의 이점을 보기로 한다. 우선 원형 이론은 ‘의미의 점검표 이론’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해 주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첫째, 원형 이론은 사람들이 범주의 비전형적인 보기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이것은 ‘펭귄’이나 ‘타조’와 같이 새답지 않은 새가 여전히 새로 간주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이 경우 ‘펭귄’이나 ‘타조’는 원형적인 새의 모든 특성을 공유하지는 않을지라도 원형과 닮아 있기 때문에 새가 되는 것이다. 둘째, 원형 이론은 손상된 보기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준다. 점검표 이론에 따르면 날개가 하나뿐이어서 날 수 없는 ‘비둘기’를 새로 범주화하거나, 다리가 세 개뿐이거나 줄무늬가 없는 ‘호랑이’를 호랑이로 범주화하기 곤란하였다. 이 경우 문제의 새나 호랑이가 해당 범주의 단지 원형적, 좋은 보기가 아닐 뿐이라고 함으로써 필요충분조건에 어긋난 난처함을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원형 이론은 단어의 의미가 본질적으로 유동적이며 불명확하므로 의미 점검표의 존재를 보다 더 유연하게 해석하게 해 준다.

또한, 원형 이론은 다의어, 동의어, 의미변화, 의미습득의 문제를 유연성 있게 처리해 준다. 첫째, 원형 이론은 다의성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동사 ‘먹다’는 ‘밥을 먹다, 돈을 먹다, 욕을 먹다, 마음을 먹다, 귀를 먹다, 한 편을 먹다’ 등 다양한 용법을 가지고 있다. 이들을 하나의 단어로 다루어야 할지 둘 이상의 별개 단어로 다루어야 할지 곤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즉 ‘먹다’의 용법 가운데 구체적인 먹거리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문제이다. 이 경우 원형 이론은 ‘밥을 먹다’를 ‘먹다’의 원형적 용법으로 보고 그 밖의 용법을 ‘먹다’의 주변적 보기로 처리한다. 둘째, 원형 이론은 동의어의 뉘뉘임을 판정해 주는 기준이 된다. 이론상으로, 동의어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며, 문맥에서 치환이 가능한 경우인데, 그러한 동의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빈도상으로 더 자주 쓰이는 쪽이 원형적인 보기가 된다. 실제로, 동의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사 동의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고 문맥의 제약이 덜 받는 쪽이 원형적인 보기가 된다. 셋째, 원형 이론은 지시물의 의미변화를 효과적으로 설명해 준다. 예를 들어, ‘술’은 원래 소나무 뿌리로 만들어졌으

---

‘bachelor’가 될 수 없으며, 또한 ‘bachelor’는 결혼적령기를 이상화하는데, 이 연령을 지난 사람은 결혼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렇지 못한 사람만을 ‘bachelor’라고 하게 된다.

나, 오늘날에는 짐승의 털이나 인조섬유로 대체되었으며, ‘수레’의 지시물이 바뀔에 따라 통시적으로 ‘차(車)’의 원형도 바뀌게 되었다. 넷째, 원형 이론은 언어습득에서 의미의 과대확장을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해 준다.

요컨대, 원형 이론은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발상의 전환을 가져왔다. 그런데 원형의 유래에 대한 확증이 없으며, 문맥에 따른 원형이 가변적이며, 로쉬(1975)에서 제시된 자연범주는 원형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지시물이 추상적이거나 지시물 자체가 없는 가상적 대상물에 대해서 원형을 추출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원형 이론에도 적지 않은 미해결 과제가 남아 있다.

## 4.2. 진리조건설과 해석설

의미 연구의 접근법에는 의미를 언어 표현과 세계의 사태 간의 관계로 연구하는 ‘언어-세계 접근법(language-world approach)’,<sup>16)</sup> 의미를 한 언어 내의 표현들 간의 관계에 의해 연구하는 ‘언어-내적 접근법(language-internal approach)’, 한 표현의 의미를 언어 사용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개념화와 동일시하는 ‘개념주의적 접근법(conceptualist approach)’의 세 가지가 있다 (Taylor 2002: 186-203 참조). 그 중 ‘언어-세계 접근법’에 의한 ‘진리조건설’과 ‘개념주의적 접근법’의 ‘해석설’은 의미를 보는 시각이 매우 다른데, 장면의 의미를 중심으로 두 관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4.2.1. 진리조건설

‘언어-세계 접근법’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언어가 언어 이전에 분절된 사물이나 관념을 지시한다는 ‘명목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플라톤의 ‘Cratylus(대

16) 의미의 ‘언어-세계 접근법’ 가운데 ‘어의론적 관점(semasiological perspective)’은 언어에서 세계로 나아가고 “이 표현의 경우에 어떤 종류의 상황이 그 표현에 의해서 적절하게 지시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며, ‘명칭론적 관점(onomasiological perspective)’은 세계에서 언어로 나아가고 “이 사태의 경우에 어떤 범위의 언어 표현이 그것을 적절하게 기술할 수 있는가?”하고 질문한다(Taylor 2002: 187 참조).

화편)’에 의하면 언어는 명칭으로서 언어 밖에 분절되어 있는 사물이나 관점을 지시하며 재현한다. 이러한 관점은 ‘의미’를 ‘지시 대상’으로 보며, 현대 언어학의 형식의미론에서 ‘진리 조건’으로 파악되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토끼’라는 언어 기호의 의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토끼’의 집합이며, “우리 집에서 기르는 토끼는 갈색이다.”라는 문장의 의미는 그것이 어떠한 진리 조건에서 참이 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진리 조건의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형식의미론에서는 지시 대상이나 진리 조건이 같으면 의미는 같게 처리된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단어와 문장의 의미는 동의적이다.

(8) 금성(金星) : 셋별 : 개밥바라기

- (9) a. 사냥꾼이 사슴을 쫓았다.  
b. 사슴이 사냥꾼에게 쫓겼다.

곧 (8)의 ‘금성, 셋별, 개밥바라기’는 동일한 지시 대상을 가리키므로 동의어가 된다. 또한, (9)의 능동문과 피동문은 진리 조건적 의미가 동일한데, 한 쪽이 참(眞)이라면 다른 쪽도 참이며, 한 쪽이 거짓(僞)이면 다른 쪽도 거짓이 된다. 따라서 (9)에서 ‘사냥꾼이 사슴을 쫓았지만, 사슴이 사냥꾼에게 쫓기지 않았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9a)와 (9b)는 동의적이며,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능동문과 피동문을 동의문으로 처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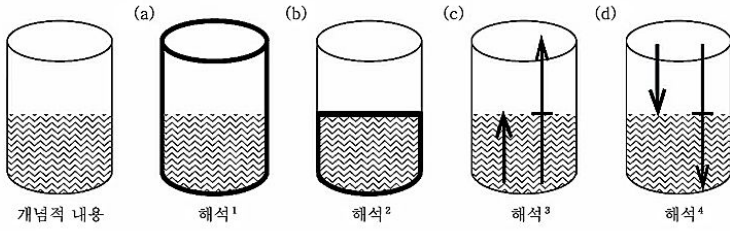
그런데 이 관점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첫째, (8)에서 세 단어가 지시 대상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셋별’은 새벽녘 동쪽 하늘에서 나타날 때 사용되며, ‘개밥바라기’는 저녁에 서쪽 하늘에서 나타날 때 사용되는 데 비해, ‘금성(金星)’은 중립적이며 일반적인 명칭으로 사용됨으로써 그 의미가 같다고 하기 어렵다. 둘째, (9)의 능동문과 피동문이 진리 조건적 의미가 같다고 하더라도 의미의 초점이 (9a)에서는 ‘사냥꾼’에, (9b)에서는 ‘사슴’에 놓이게 된다. 또한 다음의 (10b), (11b)에서 보듯이 능동문과 피동문의 진리 조건적 의미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 (10) a. 영수가 영희를 속였다. = 영희가 영수에게 속았다.  
 b. 영수가 영희를 속였지만, (현명한) 영희는 영수에게 속지 않았다.
- (11) a. 영희가 영수를 밀었다. = 영수가 영희에게 밀렸다.  
 b. 영희가 영수를 밀었지만, (힘센) 영수가 영희에게 밀리지 않았다.

요컨대, 의미를 단순히 이 세계에 존재하는 지시 대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지시’로 보거나 객관적으로 동일한 지시 대상에 진리조건이 같다고 하여 그 의미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의미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하겠다.

#### 4.2.2. 해석설

‘개념주의적 접근법’에서는 의미란 객관적 대상의 개념적 내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개념적 내용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인지 주체의 ‘해석’을 포함한다. 이 경우 ‘해석(construal)’은 대안적 방식으로 장면이나 상황을 파악해서 언어로 표현하는 화자의 선택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때 언어적 의미는 개념적 내용과 해석을 포함한 다면적 현상이 된다. 곧 인지언어학의 ‘개념주의적 접근법’에서는 ‘해석설’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의미는 개념의 주체와 객체로 구성되는 개념화로서, 장면을 포함한 한 표현의 의미는 그 표현이 환기하는 개념적 내용과 그 내용이 표현 목적을 위해 해석되는 방법과의 함수 관계로 규정한다(Langacker 1997: 242 참조). 이 점을 <그림 2>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2>는 왼쪽에 그려진 객관적으로 동일한 장면의 ‘개념적 내용’을 네 가지로 해석한 것이며, 그에 대한 언어적 대응 표현은 (12)와 같다.



<그림 2> ‘개념적 내용’에 대한 시각적 해석

- (12) a. 해석<sup>1</sup>: 그릇에 물이 담겨 있다.
- b. 해석<sup>2</sup>: 그릇 속에 물이 반 담겨 있다.
- c. 해석<sup>3</sup>: 그릇 속에 물이 반이나 남아 있다.
- d. 해석<sup>4</sup>: 그릇 속에 물이 반이나 비어 있다.

<그림 2>에서 객관적으로 동일한 장면의 ‘개념적 내용’에 대한 시각적 해석의 언어적 대응 표현 가운데 (12c)는 ‘그릇 속에 남아있는 물’의 상태를 기술한 것인 반면, (12d)는 ‘그릇 속에 비어있는 물’의 상태를 기술한 것이다. 이것은 곧 동일한 장면에 대하여 화자의 해석이 언어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며, 의미란 곧 개념화자의 해석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된다.

해석설에 따르면 (13)과 같은 단어의 의미는 동의적일 수가 없다. 곧 (13a)의 경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al Information System)’에 대해 이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나이스’라 하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네이스’라 하였으며, 중립적인 쪽에서는 ‘엔이아이에스’라고 불렀는데, 각 경우에는는 개념화자의 해석이 게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3b)의 ‘동해’와 ‘일본해’는 동일한 지시 대상을 가리키지만, 그 명칭의 사용에는 한일 양국 간의 첨예한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 (13) a. 엔이아이에스(NEIS) : 나이스 : 네이스
- b. 동해 : 일본해

또한 (14)와 같이 진리 조건적 의미가 동일한 경우, 능동문 및 피동문과 마찬가지로 주어와 통사적 전경이 되어 개념화자의 초점을 받는다. 이러한 사실은 (14)'에서처럼 부사어 '좋은 값으로'를 넣으면 그 의미 차이가 확연히 일어나는데, (14a)'는 사는 이의 관찰점을 지향하여 값이 을에게 싼 값으로 집을 산 반면, (15b)'에서는 파는 이의 관점을 지향하여 을이 값에게 비싼 값으로 집을 판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 (14) a. 값이 을에게 집을 샀다.  
b. 을이 값에게 집을 팔았다.

- (14)' a. 좋은 값으로, 값이 을에게 집을 샀다.  
b. 좋은 값으로, 을이 값에게 집을 팔았다.

그러면, 해석설의 여러 기제 가운데 '관점'과 '현저성'을 중심으로 장면이 해석되는 양상을 보기로 한다(임지룡 2004a: 56-67 참조). 먼저, '시점'은 화자가 장면의 해석에서 취하는 관점이나 입장을 뜻하는데, (15)는 '관찰점'의 문제로서 (15a)는 '가고 싶다'에 의해 관찰자가 나라 밖에 있으며, (15b)는 '오고 싶다'에 의해 관찰자가 나라 안에 있음을 드러낸다. (16)은 '객관성'과 '주관성'의 문제로서 (16a)는 객관적 이동 표현이며, (16b)는 주관적 이동 표현이다.

- (16) a. 중국 사람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b. 한국이 가장 오고 싶어 하는 나라라니 반갑습니다.

- (17) a. 소년이 들판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달리고 있다.  
b. 고속도로가 들판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달리고 있다.

다음으로, '현저성'은 화자가 장면의 특정한 부분에 초점을 부여하는 것인데, (17)은 '전경-배경 배열'의 문제로서 (17a)는 정상적인 '전경-배경 배열'을 이룬 반면, 전경-배경이 역전된 (17b)는 어색하다. (18)은 '윤곽화'의 문제로서 (18a)는 '영수', (18b)는 '열쇠', (18c)는 '문'이 각각 윤곽화된 것이다.

- (17) a. 자전거가 우체국 옆에 있다.  
b. ?우체국이 자전거 옆에 있다.

- (18) a. 영수가 열쇠로 문을 열었다.  
b. (드디어 이) 열쇠가 문을 열었다.  
c. 문이 열렸다.

요컨대, 장면의 의미란 객관적 대상의 개념적 내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개념적 내용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인지주체의 ‘해석’을 포함한다. 따라서 의미란 개념적 내용과 그에 대한 개념화자의 인지적 해석을 망라한 것이라 하겠다.

## 5. 마무리

이제까지 ‘의미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중심으로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의미의 본질을 논의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간추려 이 글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첫째, 인지언어학은 언어를 보는 시각이 형식주의적 접근법과 크게 대조되는데, 형식주의의 자율성 가설을 부인하고 언어와 다른 정신 능력 간에 공유하는 ‘인지적 언명’과 언어의 모든 양상에 공유하는 ‘일반화 언명’을 탐구하며, 언어 연구에서 신체화를 배제한 합리주의 접근법을 부인하고 의미 작용이 신체적 경험에서 출발된다는 ‘신체화된 인지 정립’을 중시하고 있다.

둘째, 인지언어학의 중심적 연구 분야로는 인지의미론과 인지문법론이 있다. 그 중 인지의미론은 의미의 문제를 인지와 관련 속에서 파악하며, 의미의 본질에 대하여 ‘개념적 구조는 신체화되어 있으며, 의미 표상은 백과사전적이며, 의미 구성은 개념화이며, 개념화 과정은 해석이다’를 그 기본 가정으로 삼는다. 한편, 인지문법론은 언어의 구조와 조직 탐구에 초점을 두며, 의미의 본질에 대해 언어가 상징적이며 언어 표현은 개념화를 상징화한다는 ‘상징적 정립’과 언어 지식이 그 사용의 실례로부터 상징적 단위를 추상화함으로써

형성된다는 ‘용법 토대적 정립’을 그 기본 가정으로 삼는다.

셋째, 의미의 본질에 대해 인지언어학에서는 자율언어학이나 객관주의 의미론의 ‘점검표 이론’과 ‘진리조건설’을 부인하고 ‘원형 이론’과 ‘해석설’을 개발해 왔다. 그 중 원형 이론은 단어의 의미가 필요충분 자질의 집합인 점검표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범주 원소의 원형을 통해 인지되며 범주의 판정은 원형과의 대조를 통해 결정된다고 본다. 한편, 해석설은 의미가 ‘지시 대상’이나 ‘진리조건’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동일한 장면의 의미가 그 표현이 환기하는 개념적 내용과 개념적 내용에 대한 개념화자의 해석이라고 보는데, 이 경우 해석은 대안적인 방식으로 장면을 파악해서 언어로 표현하는 개념화자의 선택을 가리킨다.

요컨대, 인지언어학은 언어와 사고의 상관성을 해명하려 하며, 신체적 경험을 중시하며, 의미의 백과사전적 모형을 채택함으로써 의미의 본질에 대하여 종래의 관점에 비해 인간 중심적이며, 유연하며, 설명력이 높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노양진 옮김(2000), 마음 속의 몸: 의미·상상력·이성의 신체적 근거(M. Johnson, *The Body in the Mind: The Bodily Basis of Meaning, Imagination, and Reason*, 1987). 철학과 현실사.
- 이수련(2001), 한국어와 인지, 박이정.
- 이정화(2003), “인지 문법의 최근 연구 동향,” 담화·인지 언어학회 제17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3-30.
- 이정화·우수정·손수진·이진희 (공역)(2003), 은유: 실용입문서(Z. Kövecses, *Metaphor: A Practical Introduction*, 2002), 한국문화사.
- 임지룡(1992),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 임지룡(1997a),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 임지룡(1997b), “21세기 국어 어휘 의미 연구의 방향,” 한국어 의미학 1, 한국어 의미학회, 5-28.
- 임지룡(1998), “인지 의미론,” 의미연구의 새 방향, 박이정, 35-64.
- 임지룡(2000), “Gilles Fauconnier: 정신공간 이론,” 인지언어학, 한국문화사, 35-64.
- 임지룡(2004a), “장면의 인지적 해석에 관한 연구,” 省谷論叢 34, 省谷學術文化財團,

1-46.

- 입지룡(2004b), “인지언어학의 현황과 전망,” *송실어문* 19, 송실어문학회, 51-90.
- 입지룡(2004c), “국어학과 인지언어학,” *나라 사랑* 108, 외솔회, 47-74.
- 입지룡(2006), “인지의미론의 설명력,” 609돌 세종날 기념한글 학회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논문집, 11-26.
- 입지룡 · 윤희수 · 옮김(1993), *심리언어학: 머릿속 사전의 신비를 찾아서*(J. Aitchison, , *Word in the Mind: An Introduction to Mental Lexicon*, 1987/1993,) 경북대학교출판부.
- 입지룡 · 김동환 (옮김)(1998), *인지언어학 개론*(F. Ungerer & H. J. Schmid, *An Introduction to Cognitive Linguistics*, 1996), 태학사
- 입지룡 · 김동환 (옮김)(2003), *인지언어학 입문*(D. Lee, *Cognitive Linguistics: An Introduction*, 2001), 한국문화사.
- 입지룡 · 김동환 (옮김)(2005), *인지문법*(J.R. Taylor, *Cognitive Grammar*, 2002), 한국문화사.
- 입지룡 · 윤희수 · 노양진 · 나익주 (옮김)(2002), *몸의 철학: 신체화된 마음의 서구 사상에 대한 도전*(G. Lakoff & M. Johnson,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Western Thought*, 1999), 박이정.
- Evans, V. and M. Green(2006), *Cognitive Linguistics: An Introductio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Fillmore, C.(1975), “An alternative to checklist theories of meaning,” *Proceedings of the First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Amsterdam: North Holland, 123-131.
- Gibbs, R. W.(1996), “What’s cognitive about cognitive linguistics,” In Casad, E. H.(ed.), *Cognitive Linguistics in the Redwoods: The Expansion of a New Paradigm in Linguistics*,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27-53.
- Goldberg, A.(1995), *Constructions: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Lakoff, G.(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1990), “The invariance hypothesis: is abstract reason based on image-schemas?,” *Cognitive Linguistics* 1-1, 39-74.
- Langacker, R. W.(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I*, Stanford, California: Standford University Press.
- Langacker, R. W.(1999), *Grammar and Conceptualization*,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 Leech, G. N.(1981), *Semantics: The Study of Meaning(Second edition-revised and updated)*, Harmondsworth, Middlesex, England: Penguin Books Ltd.

- Radden, G. and D. Dirven(2006), *Cognitive English Grammar*,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 Rosch, E.(1975),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semantic categori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04, 192-233.
- Rosch, E.(1978), Principles of Categorization, In Rosch E. & B. Lloyd(eds.), *Cognition and Caterization*, Hillsdale, N.J.: Erlbaum, 27-48.
- Stockwell, P.(2002), *Cognitive Poetics: An Introduc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Talmy, L.(2000),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ol. I, II*, Cambridge/ London: The MIT Press.
- Ullmann, S.(1966). *Language and Style*, Oxford: Basil Blackwell.
- Werth, P.(1999), *Text Worlds: Representing Conceptual Space in Discourse*, Edinburg: Pearson Education Limited.

대구 북구 산격동 1370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701-702  
전화번호: 053-950-5827  
전자우편: jrilm@knu.ac.kr, 팩스: 053-950-6803

원고접수일: 2006년 9월 30일  
게재확정일: 2006년 10월 2일

